



천주교 마산교구

부활 제3주일

2024년 4월 14일

제2613호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몬세라트수도원, 스페인)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3,13-15,17-19

화 답 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제 2 독 서 1요한 2,1-5ㄱ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루카 24,35-48

영 성 체 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야. 알렐루야.



김호준 시몬 신부

교포사목(미국 신시내티)

“‘부활’은,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변화’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물질 안에도 존재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활’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과 뼈, 육신과 물질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뵈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령을 보는 줄’(루카 24,37)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움’과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영적인(보이지 않는) 몸이었나요, 아니면 물리적인(물질적) 몸이었나요? 또 ‘사도신경’의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는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던 ‘물질’은 ‘분자’와 ‘원자’로 분해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체로부터 흩어진 ‘물질’을 꽃나무가 자신의 영양분으로 흡수해 버리면 우리의 부활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바다에 사는 귀여운 아기 상어야! 작년에 네가 뜯어먹었던 내 ‘몸’의 단백질과 분자와 원자를 다시 나에게 돌려줘! 내가 육체를 입고서 부활해야겠어!” 혹은 우리는 ‘남자’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여자’로 부활할까요? 젊은 모습 혹은 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생전에 장애를 지니고 살았던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몸통이’가 없는 ‘유령’도 아니요. 반대로 ‘영혼’(유령)은 없이 ‘시체’만 다시 살아난 ‘좀비’도 아닌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물질적인(물리적) 우주를 창조하셨고, “보시니 좋았다”(창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물질’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로마 8,22)과 ‘물리적인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물질적인 몸’(1코린 15,44)을 입을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의 파괴와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변화’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물질 안에도 존재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활’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육체’의 구원 앞에서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영지주의, Gnosis) 한낱 사이비 주장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되새겨야 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의 아들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에제 37,3)와 같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혹은 ‘마카베오기’에 등장하는 부활의 흔적들을 다시 묵상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전례가 없고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은 ‘부활 사건’ 앞에서, 아우구스티노(Augustinus) 성인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문구를 떠올려 봅니다. “네가 하느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그리 놀라운 일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진’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느님’(루카 1,37)께서는 우리의 부활 때에 각 사람에게 ‘새롭고 영광된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윤종두 신부 경상남도경찰청 경신(경찰사목 신부) 위촉



윤종두 요한 신부(담당: 국내이주사목)는 경남경찰청 민경 협력치안과 경찰청 직원들의 신앙 함양을 위해 경신(경찰사목 신부)으로 위촉되었다. 그리하여 4월 2일 경남경찰청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치안감)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나의 칠락 묵주기도의 묵상

강한중 안드레아 시인/ 가톨릭문인회

칠락 묵주기도의 전송에 나오는 자비하신 동정 성모님을 묵상해 본다.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와 용서, 사랑을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마음에 품은 참 기쁨의 사랑이었나?

혹시 나의 입술에 거짓 없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약속을, 내 이웃을 통하여 삼위이시고 한 분이신 하느님께 영광 드리며 교회와 조국과 세상의 참 평화를 위하여 연옥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며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모든 뜻에 합당하게 나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기주의투성이다.

물론 노력하였지만,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님의 보배로운 성체와 성혈로 죄의 씻음을 받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탕자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우리들의 몸이다. 성자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들은 참회하며 그분의 가난과 고통을 나누어 져야 하며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과 더욱더 봉사하는 겸손한 작음이 사랑으로 소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요즘 나는 한층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최근에 내 삶의 영성에 혼돈이 온다. 인간과 인간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성, 왜 인간들은 거짓평화를 앞세우고 자기 세계의 이기적인 투쟁을 해야 하나 하고 불안한 세상을 생각하며 바라본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적 이기심도 주님 앞에서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반성하며 고백하게 한다.

며칠 전에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내 생의 많은 생각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병의 진단이다. 나의 영혼은 이기적인 발동으로 주님께 빌었다. “주님,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잔벌을 보속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빌었다. 물론 하느님께 빈 것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청하였고 인생이란 깨어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한층 더 생각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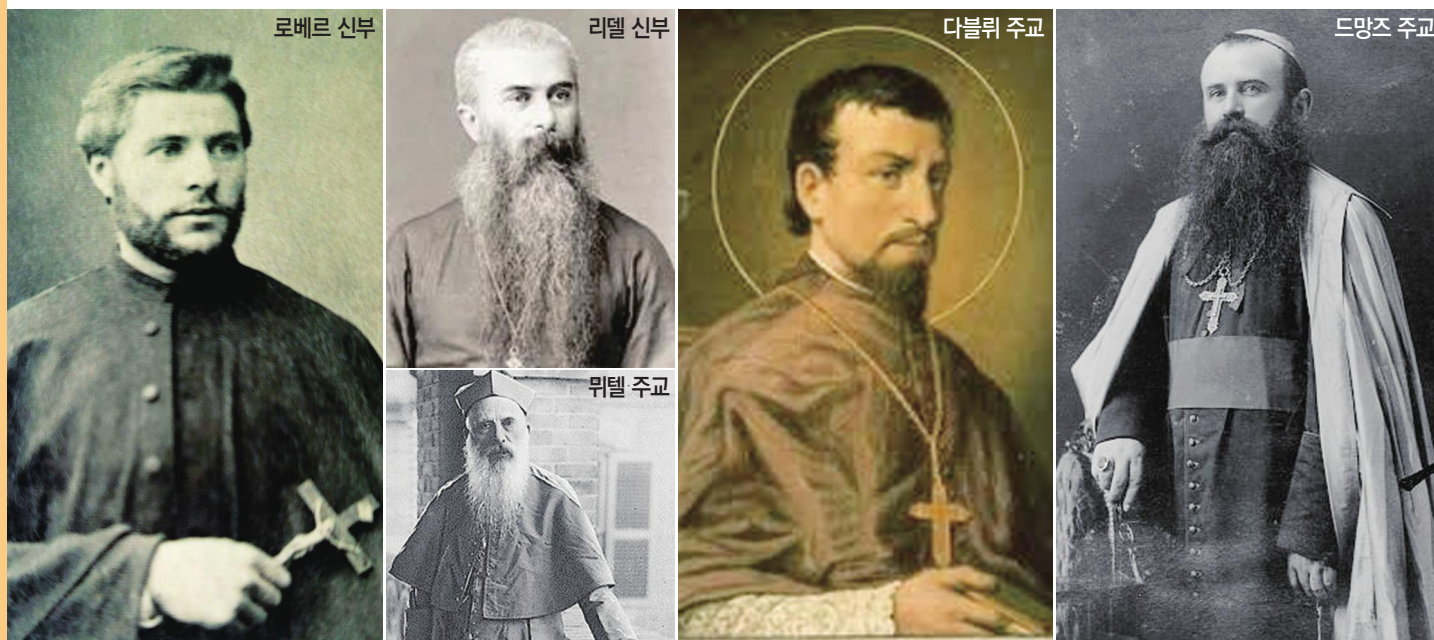
다시 또 다짐해 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도둑이 들어 닥칠지..., 언제 주인님께서 오실지..., 등경에 불 밝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고. 한 번 더 맹세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 뿐이다. 늘 이웃과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건강을...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

황광지 가타리나/ 가톨릭문인회



프롤로그

이분들을 밀쳐둘 수가 없었다. 다케, 무세, 베르몽 신부와 같은 인물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들추었던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읽을수록 선교사란 존재에 온통 사로잡혔다. 어떻게 그들은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청춘과 목숨을 다 바쳐 여기 이려고 있어야 했는가? 본래 쓰기로 계획했던 인물을 잠시 접고, 복받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분들을 기리고자 한다.

한국천주교에 이바지한 파리외방전교회

1658년 교황청 직속으로 설립된 파리외방전교회는 1660년부터 아시아에 선교사를 4,500명, 그중 360명이 한국 파견이었다. 한국천주교에는 그들이 일군 선교의 피땀이 깃들어 있다.

조선의 교우들이 1811년, 1827년 두 차례에 걸쳐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다. 신해박해와 신유박해 등 모진 탄압에도 신앙을 지킨 교우들은 교황에게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간절한 바람을 들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브뤼기에르는 모두가 기뻐하는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했다. 183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조선교구를 설정하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브뤼기에르 주교는 부임하던 중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병사하고 만다. 그분의 죽음과 조선 조정의 참혹한 박해 소식에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조선행이 이어져, 3년이라는 긴 항해 끝에 조선 땅에 하나둘 도착했다. 프랑스 사제들은 1942년 노기남 주교가 교구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110년간 9대에 걸쳐 교구장 직을 수행하며 한국천주교의 기초를 다졌다.

사제 양성과 문화를 이끈 선교사들

1837년에 2대 조선대목교구장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가 입국하였다. 그분들은 소년 세 명을 선발하여 마카오에 보내 교육하고, 1845년 최초의 방인 사제 김대건 신부, 1849년 두 번째로 최양업 신부를 배출했다. 1855년 베르뇌 주교는 배론에 성요셉신학당을 세워 조선 내에서 사제양성 교육을 시작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서울에 목판 인쇄소를 세워 <천주성교공과> <성교요리문답> 등 각종 교리서를 간행했다. 1874년 달레 신부는 파리에서, 다블뤼 주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사>를 펴내 조선교회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1882년 블랑 주교는 종현본당(현 명동본당)을 설립했다. 1885년 강원도 원주 부흥골에 다시 신학교를 설립한 후 1887년 서울 용산에 예수성심신학교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1914년 대구교구에 성 유스티노신학교를 설립하면서 방인 성직자를 배출하여 한국천주교의 근간을 이루게 했다. 신학교와 더불어 일반 교육에도 참여하였고, 선교사들은 조선의 의료·교육·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명동대성당과 약현성당도 코스트 신부가 설계하고 지은 고딕식 벽돌 건축이다.

제8대 조선대목교구장 뮈텔 주교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순교자들의 치명사적을 조사함으로써 1925년 7월 79위 치명자들이 복자품에 올랐다. <뮈텔 주교 일기>는 뮈텔 주교가 교구장에 임명된 1890년 8월 4일부터 1933년 1월 23일 선종하기 직전까지 약 42년 5개월 동안 자신의 개인사와 교회 활동 및 선교사들의 업무보고 내용, 당시 조선의 정치·외교·사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록하였다. 다만 뮈텔 주교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오늘날 친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 몇 분이라도 거론해 본다면

다블뤼 신부는 1859년부터 5년간 경상도 선교를 맡았고, 리텔 신부는 교우촌 지도를 들고 1861년 조선에 와서 서부경남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문산, 칠원, 의령 등으로 선교했다. 로베르 신부는 대구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횡무진 드나들며 선교하였다. 그는 1887년 경상도에 콜레라가 만연할 때 의술로 환자들을 지성으로 간호하고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경건하게 치렀다. 문산본당의 초대 주임 줄리앙 신부를 비롯하여 우도 신부나 조조 신부 또한 부산본당에서 경남지역의 사목을 맡아 동분서주했던 선교사들이다.

조선말의 박해는 프랑스 신부들의 순교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조선의 자국 선교사 처형에 항의해 군함을 보내 강화도에 상륙하여 도성을 약탈했고,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어 어느 정도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자 수가 날로 늘어나 제주도와 간도까지 뻗어나가자, 1911년 조선대목구에서 대구대목구가 분리되고, 드망즈 주교는 초대 교구장이 되었다.

에필로그

이 땅에 파견되어 사는 것 자체가 순교였던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처럼 입국조차 하지 못한 이, 도착하자마자 병사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여러 해를 헤매었으며, 박해로 인해 강제 귀국도 했다. 사목 중에 피붙이가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피했다는 가슴 아린 일들이 전해진다. 오직 주님!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천주교도 급성장하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현재 한국에서 9명의 신부가 외국인 노동자나 수감자, 병원 등 특수 사목 분야에서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 시내에 있는 외방전교회 정원에는 한국순교성인현양비가 있고, 바로 옆의 팔각정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는 현판도 있다.



파리 팔각정

▶참고: <천주교마산교구40년사> <완월동성당120년사> <뮈텔 주교 일기>
천주교대구대교구 자료, 천주교서울대교구 자료, 파리외방전교회 자료



기억할 선종 사제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2016년 4월 15일

교구장 서리 동정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5일(월) 19:30
장소: 사파동성당

견진성사

일시: 4월 21일(주일) 10:30
장소: 완월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16일(화)
본당: 양곡/ 명서동/ 가음동
일시: 4월 18일(목)
본당: 생림선교/ 진영/ 장등

교구/본당

성직자 묘지 성묘

일시: 4월 15일(월)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전국 사회복지국(회) 실무자 연수

일시: 4월 17일(수)~19일(금) 2박 3일
장소: 전주 치명자산성지

4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4월 21일(주일) 13:00
장소: 진동성당

32차 청년성령세미나

일시: 4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성서 에파타 "떼제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 4월 26일(금) 19: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지하 정당

청년 성서 '에파타'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나눔에 관심 있는 청년
신청: <https://forms.gle/syBoKbvEen9dC5AJ7>
및 QR코드로 신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장애·비장애 통합 합창단 '파첸 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2층 대강의실
모집: 수시(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분야: 합창, 피아노 반주(반주자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
신청 및 문의: 055·540·0440(진해장애인복지관)

기 타

2024 성령쇄신 전국치유대피정 실시

일시: 4월 27일(토) 09:00~17:4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상: 모든 교우
강사: 오웅진 신부, 한연홍 신부, 양창우 신부
미사: 구요비 읍 주교, 전국 교구 담당 및 협력 사제단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5월 11일(토)~12일(주일)
6월 8일(토)~9일(주일)
4박 5일~ 5월 27일(월)~31일(금)
3박 4일~ 6월 27일(목)~30일(주일)
8박 9일~ 4월 15일(월)~23일(화)
5월 1일(수)~9일(목)
40일~ 10월 4일(목)~11월 12일(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3월부터 5월 29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1년) 교육 이수 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010·5230·1420, 010·8782·9520

프란치스코 청년회(유프라) 모집

모집: 상시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청년(유프라) 010·4559·5134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5월 20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신자/ 문의: 010·3191·8315

연령연합회 연도 교육 안내

일시: 4월 21일(주일) 14:00~17: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대상: 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각 본당 연령회장에게 접수
참가비: 없음/ 준비물: 상장예식서(연도책)
문의: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6677·6675(정승환 예로니모)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4월 15일(월) 19:00	중앙동성당	제2강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배형진 야고보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010·6221·3520	대상: 중·35세 이하 미혼 남성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월 20일(토) 14:00(그 외에는 문의 바람)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루카 수녀)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일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 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에반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	---	---	--

창원산타체칠리아 여성 합창 단원 모집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연습일정: 매주 화요일 13:00~15:00

장소: 전용 연습실(용지로 103번지)

대상: 20~60대 여성 신자 또는 예비자
성음악, 가곡 등 다양한 합창곡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경력과 실력보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분
(입단 오디션 없음)

활동: 정기연주회, 합창 연습, 음악봉사 등

문의: 총무 010·3177·7976/

jeanne0524@naver.com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5일(월)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교구 성소 주일 행사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사무 3,5)



제61차 성소 주일을 맞아 교구에서 성소 주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4월 21일(주일) 10:30

장소: 교구청(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문의: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성소 주일 행사 초대 영상은 교구 홈페이지 (<http://cathms.kr>) 및 유튜브(QR코드로 접속)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QR코드

상남동본당 부활맞이 생태 부활 계란 주머니 만들기



상남동본당(주임: 진선진 마태오 신부, 사목회장: 문형호 그레고리오)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생태 부활 계란 주머니 만들기를 하였다. 상남동본당은 사순 시기 동안 평일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봉헌하였으며, 특히 한주에 한 번은 ‘생태 십자가의 길’기도를 통해 지구를 살리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생태 부활 계란 주머니를 준비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려 노력하였다. 동백나무 씨방을 모아 꽃 모양으로 장식하고 계란 주머니는 썬 마 끈으로 뜨개질하여 계란을 먹은 후에는 묵주 주머니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만들어 본당 전신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더불어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후에는 전 신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죽 부활’이란 글자를 새긴 비빔밥으로 사랑의 밥상을 마련하여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며, 본당 신자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교구 연령연합회 2024년 제1차 상장례 교육 실시



교구 연령연합회(담당: 최훈 타대오 신부)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2024년 제1차 상장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29개 본당, 95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연령회 봉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가톨릭 장례 예식의 의미, 미사 전례의 중요성과 연령회 봉사자의 역할,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와 연도, 임종자에 대한 이해, 연습 실습과 각종 상장 예식의 실연, 연도 가창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체성사와 교회법(4)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신해도 되나요?

A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사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공동체 미사도 금지 되었을 때 신자들에게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미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된 미사를 보며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집합금지가 풀리고 공동체 미사가 허용되는 지금에도 성당에 오지 않고,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법에서는 미사를 “지성한 성찬”이라고 부르며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교회법 897조 참조) 따라서 성사적 영성체(communio sacramentalis)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몸과 마음으로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교회법 1247조)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교회법 1248조) 따라서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영성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가능한 것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령이나 병환으로 성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일미사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주변에 성당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미사의 의무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직업은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대송으로는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송의 방법으로는 묵주기도 5단 바치기,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기, 선행을 실천하기도 있습니다(주교회의 2014년 춘계총회 참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송미사를 하면서도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령성체란?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망으로 기도한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총은 실제 영성체를 한 것과 같아지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영적 영성체(communio spiritualis)”라고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2003년)에서도 예수의 테레사 성녀가 표현한 영적 영성체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미사에도 참례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이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4항)

하지만 영적 영성체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거나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은총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례하여 직접 성체를 모시는 은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